

불이웃돕기 운동에 적극 참여키로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제73차 정기회의

포천신문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승찬)는 1월18일 제73차 정기회의를 갖고 포천신문사 불이웃돕기 창구가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운영위원들은 “그 동안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포천신문사 불이웃돕기 창구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참여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밖에도 운영위원들은 포천신문 유료독자 확보, 운영위원 자사 홈페이지와 링크, 포천신문 홈페이지 가입 등 포천신문사와 운영위원회의 유기적인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2008년도 첫 번째 회의인 점을 감안해 위원들의 신년 덕담과 운영위원회 새해설계의 건, 불이웃돕기 창구이동 및 추천에

관한 건 등에 관해 토의했다. 직전 위원장인 윤이용 고문은 “그동안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임을 강조하고 “신임 박승찬 위원장을 모시고 포천신문과 운영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자”고 당부했다. 박승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윤이용 위원장님을 이어 위원장을 맡았으나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서 “위원님들이 친숙하고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선배 위원장님들의 자문을 받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희열 대표이사는 “운영위원회가 2002년 출범한 이후 6년째 되는 해로 벌써 73차 회의를 하게 되었다”며 “운영위원회가 명실상부한 가장 훌륭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와 포천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된다”며 “유능한 일꾼을 선출할 수 있고 공



포천신문 운영위원회는 1월18일 제73차 정기회의를 갖고 포천신문사 불이웃돕기 창구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승환 기자 form65@paran.com

새인물

재경포천시민회 회장 이각모

“포천시를 이끌 지도자는 검증과정 통과해야”

재포천 元老와 재경포천시민회와의 연석회의 개최



사업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끼리 친목과 고향을 위한 서로의 교류를 목적으로 설립했으며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 포천시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다지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선배들께서 가꾸어 오신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재경포천시민회의 위상을 재고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포천 원로와 재경포천시민회의 훌륭한 분들과의 연석회의를 통해 토론회할 수 있도록 ‘포천경제포럼’을 조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포럼은 포천사회에서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참석시켜 정책과 소견을 밝히고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포천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특별히 재경포천시민과 포천시민에게 당부할 사항이 있다면? 첫째, 일부 포천인들 중 포천에는 원로들도 없고 고향발전에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불평하면서 하루 빨리 어떤 형태로든 고향 발전을 위한 원로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포천출신 원로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원로님을 격식 갖추어 모시는 계기가 많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 포천은 수많은 원로 분들을 배출하였고

현재에도 이 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젊은 후배 세대들이 그분들을 모시고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고 그런 경험도 극히 적었다는 것을 자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책임하는 동안 관심 있는 선배배가 모두 참석하여 고향발전에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의 자제와 질서를 가다듬는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앞으로 선거가 치루어질 텐데 유능하고 적극적이며 진취적이고 지혜로운 분들이 국회의원과 시장직을 맡아 고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잃어버린 10년이 있다고 하듯이 포천 역시 더 잃어버린 10년이 되지 않도록 미리 단단한 예방책을 강구해야겠습니다. 능력부족이나 함량미달의 지도자는 잠시 대중들을 속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모두 드러나게 되고 냉정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실한 실적을 과시하고 되지도 않는 약속을 하는 등 전형적인 관료의 탈을 벗기도록 시민들도 깨어 있어야 되며 더욱 감시의 눈초리를 늦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셋째, 누구든 앞으로 포천사회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분들은 포천지역 교육 여건개선과 산업 활동을 통한 지역발전에도 중점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천신문에 거는 기대는? 처음에는 상업성을 띤 일반 주간지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내용면에서 고향출신보다 더 애착을 갖고 보도하고 각 분야에서 다양한 고향소식을 담아 재경포천시민들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포천신문을 유가지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셔서 포천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더욱 빛나는 조사위원회가 되자”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제28차 정기회의

포천신문 조사위원회(위원장 이상일)는 1월10일 제28회 정기회의를 본사 대회의실에서 갖고 조사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매월 한차례 회의 때 참석단으로는 조사위원회가 활성화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위원간의 등산모임 등의 비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위원간의 친목을 다지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2008년 하계연수는 금강산 관광을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검토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안건으로 제시된 포천신문 창간 18주년 기념행사에 관한 견해에 대해 위원들은 수많은 내외귀빈들이 참

여해 성황리에 마쳐 힘있는 언론사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관계로 참석자들에게 대한 행사와 식사가 병행되었던 점이나 기념식이 좀더 나은 점에 아쉽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상일 위원장은 “지난해 12월15일 포천신문 창간 기념식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린다”면서 “2008년 한해는 더 빛나는 조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최효열 대표이사는 “2000년 8월18일 인수한 이후 10일 간격으로 한번도 빠짐없이 포천신문이 발행될 수 있었던 것은 포천신문 5개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특히 조사위원회는 불이웃돕기 창구 창구를 개설하고 물품과 성금을 기탁해 우리지역에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포천신문 조사위원회는 1월10일 제28회 정기회의를 본사 대회의실에서 갖고 조사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승환 기자 form65@paran.com

‘삶의 현장 이야기를 지면에 반영’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제21차 정기회의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단장 박혜자) 제21차 정기회의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10일 포천신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박혜자 단장은 “희망의 2008년에 모든 명예기자 여러분들의 건감과 행복지가 함께하기를 기원한다”며 “올해는 좀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독자배가운들은 물론 각 지부가 활성화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말했다. 최효열 포천신문사 대표이사는 포천신문사와 주부명예기자단의 목적과 연계에 대해 설명하고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해오신 것처럼 2008년에도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

으로 포천신문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신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 후에 박혜자 단장은 김은희 연천군자부장과 안미영, 정화실, 예애자, 김인숙 주부명예기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말은 바 사명을 다해 나갈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주요안건은 포천신문 홈페이지에 하루 1회 이상 방문하여 흔적 남기기, 주요 자료 참고하여 읽기 등 활발한 활동을 하기로 했으며 독자배가운등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포천신문 구독을 권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사제보 및 기사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김기호 고문이 기사 쓰는 방법에 대해 쉽고 편안하게 시작할 것을 주문했으며 각 지부 활성화의 건에 대해서는 지부장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지부 명예기자들과 함께 해 나가기로 했다.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제21차 정기회의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신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돼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이야기를 지면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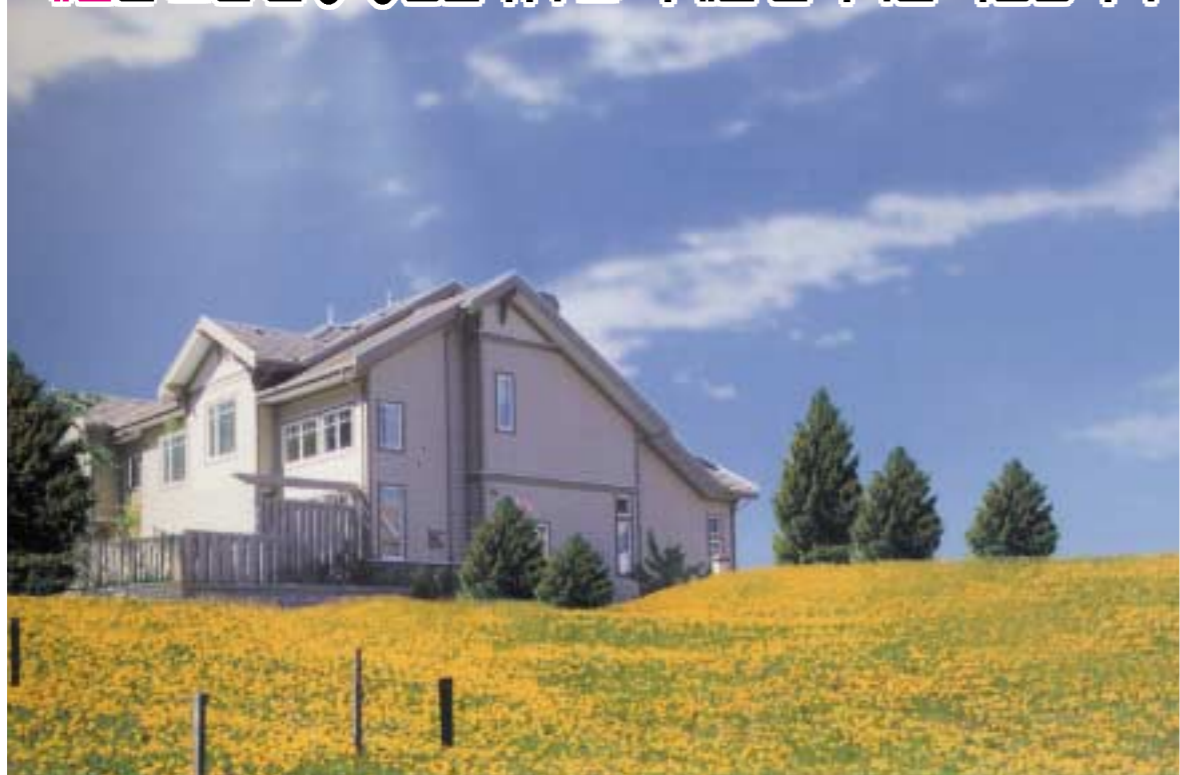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앞선 기술력으로 고객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업

예원은 오랜 현장 경험을 위주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입니다

“무자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 상담 환영

신축·중축 리모델링

주택·공장·상가

냉동·냉장창고

완벽한 설계·시공·철저한 A/S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

코티가구
대표 : 남기태
전화 : 031-534-2519

꾸준한 상품개발 저렴한 가격

(주)에스케이니트
(www.sjknit.com)
대표이사 : 김병균
전화 : 031-533-8332

아스팔트 도로포장 전문시공

서인건설(주) 영광포장(주)
대표이사 : 박광승
전화 : 031-535-1485
031-535-3157

장난감 완구 금형사출 개발

알라딘상사
대표 : 나승협
전화 : 031-535-6990-2



예원 건설

-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는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426 대표전화 031)536-4200 FAX 031)541-8567
대표 : 이두원 019)328-0357 이사 : 박관희 017)702-5288 과장 : 김영국 010)3132-6108
과장 : 임영복 010)8997-4493 과장 : 윤강현 010)9498-5441